

看護員의 充員問題

종합병원과 개인병
원의 경우를 따라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전의료계의 긴급문제로 되어 있는 간호원의 충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관광호텔에서 추계 강습회를 개최했다.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보사부 간호과장, 대한 간호협회장, 의학협회장 및 병원협회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이 모임에서는 오전에 간호원의 충원문제를, 오후에 병원에서의 원가계산 문제를 다루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대한병원협회장 한심석 박사는 현재 간호원 수요 부족의 큰 원인이 낮은 대우에 있으니 우선 대우개선을 해 주어야겠다고 개발 공사에서는 국내수급을 위해 당분간 간호원의 인력수출을 억제해야 되겠으며,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원들을 정부의 간호보조원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임시보조원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충원문제가 좀 원만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명주완 의학협회장도 측사를 통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인 간

호원의 충원문제와 병원의 원가계산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어 그 결과를 실천면에 반영시켜야겠다고 했는데 특히 간호원의 충원문제에 대한 강의와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원의 교육문제;

현재 시급한 간호원의 수급대책에 비추어 그 교육문제도 재검토해야 되겠다.

지난 5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67년도의 전국 간호학교 졸업생수가 902명으로 예상되고 1968년도에는 983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부족량을 증당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졸업생수를 증가시켜 수적 대비를 갖추려면 그 지도력과 시설이 완비된 기존간호학교에다 인건비와 시설비를 늘어 주어 질적, 양적인 교육을 병행시켜야 되겠다.

한편 이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샵”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고 외국에로 파견하

여 우리 국내에서만 필요한 간호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간호원을 양성하는 데 진력해야겠다.

이번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병원 책임자와 간호학교 교사가 상호 협조하여 배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도록 도와야겠다.

국제간호협회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간호원은 그 수준과 자격이 ICN의 기준에 도달해야 하므로 수요부족의 [진급대책이라고 해서 그 양적 대비에 골몰하여 수준과 자격에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면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간호학교 대표> 이귀향

간호원의 관리문제;

간호원이 병원에서 일하는 위치는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전체의 작분야와 접촉이 잦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병원관리에 있어 간호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충분해야 한다.

간호행정은 그 병원의 설립이념과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오는데 첫째 그 병원 간호원장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달라지며 규칙과 질서가 정연한 병원에서만 간호행정이 원만해 질 수 있다.

아무리 간호행정이 원만해질 수 있고 또 간호행정에 힘을 기울인다 해도 병원 작분야의 협력이 없이는 원만해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병원경제와 시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환자간호에 필요한 간호원의 수가 정원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간호행정도 원만해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간호원 자신들의 교육과 자격에 따라 간호행정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간호원은 반드시 소정의 간호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원을 적재적소에 쓰므로써 병원 운영이나 간호행정이 원만해질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간호원들의 해외진출의 기미가 보이므로 각병원에서는 그 대우를 개선하여 유능한 간호원을 유치해서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면 좋을 것이다.

어쨌든 환자 간호는 간호원이 해야 되므로 첫째 간호원의 수가 충분해야 하며 현재 보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호보조원이 병원 자체에 얼마만한 손익을 주는가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간호원이 일하는 것과 전문인이 아닌 보조원이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으니 병원측에서는 간호보조원을 최소한으로 써 주었으면 좋겠고 간호보조원은 반드시 전문 간호원의 감독하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업무한계를 뚜렷이 해 주어야 하겠다.

<간호협회장> 홍신영

간호원의 총원문제;

지금까지 간호원의 위치와 질적문제에 대해 얘기가 있었으니 정부로서 가지고 있는 안을 소개하겠다.

국민 의뢰에 있어서 예방, 공중보건, 질병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원들의 수급대책이라고 해서 일조일석에 소요인원이 확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3년 동안의 장기계획을 세워 1967년~1971년 중 소요인원

- ① 일반보건의료기관 15,000명
- ② 일반자연감소의 총원 6,000명
- ③ 의료망 강화의 절대수 3,200명으로 도합 24,000명으로 보고 있다.

현재 등록된 간호원의 수는 9,800명으로 취업자가 6,800명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간호원이 1,300명이며 그 부족판단은 일반 보건의료기관이 8,600명, 자연감소의 총원이 8000명, 의료망 강화에 3,200명으로 약 20,000명이 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29개 간호학교의 연간 배출량은 950명 밖에 되지 않아 이 부족한 인원을 완전히 보충해 나가려면 20년 이상이 소요되게 된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실시한 인구자연증가로 간호원의 수요량도 증가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간호원의 수급 기본방안으로서 5개년 계획 중에 29개 간호학교를 연차적으로 약 2배로 확충하고 그 정원을 최대한으로 400명 이상 증원시키며

4개교씩 20개교를 신설할 것을 절충하고 있으며 간호보조원 양성문제에 있어서도 간호보조원제도를 채택하여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1966년에 250명을 선발하여 11개 교육병원에서 국비교원의 지도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600명을 교육시킬 방침이다.

<브사부 간호사업과장> 환영희

종합병원 관리자의 입장에서;

주요 국립병원인 부산 의대병원의 경우를 들어 말하겠다.

현재 부산에는 492명의 자격간호원이 있으며 그중 434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의국인병원에 204명, 종합병원에 100명, 해외진출이 42명, 양호교사가 28명, 전출이 28명, 보건소 15명, 기타 간호학교등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부산의대병원은 현재 41명으로서 의료법 제32조에 따른 정원 82명의 50% 밖에 안되고 예산상 T.O.인 52명에도 12명이나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지난 1년 동안에 22명이 직업전출을 해 갔는데 그 원인이 경제적인 것이 50%, 해외진출이 40%, 기타가 10%로서 결국 해외진출 기타의 경우도 모두 경제적인 원인이 대부분 내포되어 있다.

또 현재 간호원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가 보면 아래와 같다.

병원	급여	특별급여
SCF	12,000~ 15,000원	1년에 2회
아동자선병원	8,000~ 10,000원	1년에 1회
철도병원	7,000~ 8,000원	공무원법대 로
대학병원	6,000~ 8,000원	

위를 보면 SCF(아동구호재단)나 아동자선병원이 국립기관보다 대우가 좋고 간접적인 도움에 있어서도 SCF나 아동자선병원, 적십자병원에선 보건의비를 제공(본인의 치료비 부담)하고 있지만 부산 대학병원에서는 그때 그때 적당히 하긴 하지만 제도상 아무런 혜택도 없다. 특히 철도병원은 본인의 치료비는 물론 직계가족의 철도 무임승차까지 허용되고 있다.

현재 간호원이 일하는 업무량도 대단히 많아서 간호에 관한 일은 물론 인턴, 레지던트가 할 I.V.주사 CBS 채혈 경우에 따라 치료등 여러가지들도 도와 주고 있으나 그 업무한계를 뚜렷이 하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간호원은 환자접수, 물품관리보다 간호학생 교육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또 국립병원의 경우 간호원 부족의 2차적 요인이 임용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2~3개월씩 걸리는데 있으니 이것도 개선해 주기 바란다.

병원건물 자체가 “에베타” 통신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기숙사

가 안전치 못한 것 등도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 ① 대우개선
- ② 업무한계 확립
- ③ 임용절차의 간소화
- ④ 병원시설의 개선
- ⑤ 간호원이 본래의 일을 전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임상 보조원으로 충당해 나갔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하루 속히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기 바란다.

<부산의대병원장> 문고중

개인병원관리자의 입장에서;

지난 9월 하순에 개인병원의 투자격간호원이 법에 고발되어 큰 골의를 일으켰는데 이는 그 한 개인병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원제도는 종합병원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니 개업의에게는 하나의 sample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종합병원에서도 간호원이 부족한데 개인병원에까지 돌아갈 간호원이 있겠는가? 첫째 간호원의 직종을 여러가지로 다원화해 주어야 개업의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개업의들은 그 명칭이야 어떻던 간에 의사의 수족이 되고 보조자가 될 수 있는 의료요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간호원의 증원대책으

로서 간호보조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보건소나 종합병원의 총원책이지 개인병원에는 하등의 혜택이 없는 것이다.

요망사항;

- ① 법적자격이 구비된 보조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 ②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나 약포장, 때에 따라서는 수혈 처치까지 할 수 있고 장기간 입원자에의 출장도 갈 수 있는 보조원을 달라.
- ③ 보조원 신분의 강력한 법적 보장이 되어 있어 우발사고에 대한 신분보장도 해 달라.
- ④ 개업의들이 쓰고 있는 무자격자들을 시험을 치뤄 잠정적으로 구제해 달라.
- ⑤ 보사부 규정에 따른 보조원도 좋고 그보다 더 낮은 보조원도 좋으니 대량 배출해 달라.

한편 개인병원을 위한 보조원 양성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단축과 매년 보수교육의 기회를 주고 점정제도를 확대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 간호원의 수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간호원이전 보조원이전을 하루 속히 당국에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개인병원장> 홍성문

간호원 총원문제에 대한 토의;

홍신영 :

개업의를 보조하는 조역자가 꼭 간호원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되느냐가 문제이다.

현재도 여러 제급의 간호원이 있고 그 업무한계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으니 개업의가 여기 적응키 어렵다면 개업의 자신들이 간호원도 간호보조원도 아닌 다른 명칭으로 구미에 맞게 양성해서 쓰는데 좋지 않겠는가.

개인병원에서 하는 일 자체가 간호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구태어 간호원이라 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부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개업의들이 왜 간호원들을 쓰지 못하나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이유가 만일 인격적, 물질적 대우에 있다면 이는 우리 간호교육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또 실제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원들을 점정시험제도를 거쳐 구제해 나간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가까운 이웃나라에 있어서도 이 점정제도로 많은 골치를 앓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킬 필요는 없다.

명주완 :

미국의 큰 병원에서는 Practical Nurse 를 9개월동안 학비면제로 교육시켜 간호원의 보조자로서 주사와 투약을 제외한 모든 심부름을 하게 하고 있다. 투약도 Practical Nurse

가 된 후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선 긴급대책으로서 이 Practical Nurse를 많이 양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서독에서 지금 우리 간호원들을 약 150불씩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0~300불씩 주어가며 서독에 가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니 보사부에서는 이 점을 냉정히 생각해서 속히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간호보조원은 정부기관에 필요해서 양성하고 있는 것이니 개인병원에는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가가 큰 문제점이다.

홍성문 :

간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해외진출에 있으니 금년에 950명의 졸업생이 나온다지만 그

반면에 1,000여명이 또 해외에 나갈 것을 예상한다면 당장 새학기 부터 큰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해외진출도 막지 못하고 보조원도 아직 안나오고 계속해서 인력수출은 하고 결국 개업의들은 제멋대로 양성해 쓰다가 법에 걸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홍신영 :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해외진출을 맡아 왔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간호원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기로 간호협회에서 건의하고 있다.

이런 총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원서를 작성하여 각계요로에 건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특별위원회 보고

본협회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보사부, 문교부, 국회 보사분과위원 문공분과위원 그리고 법제처등 각요로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간호원의 대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인 결과 국회 8인예결위원에까지는 통과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지방보조급 강화로 간호교육비와 교체되어 통과를 보지 못했으므로 오는 2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시켜 통과시킬 각오로 계속 투쟁중이다.

한편 지난 12월14일 오후 6시에는 조선히텔 state room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의 김성철, 정현조, 조영선, 전진한, 김상현, 김태중의원과 보사부차관 이태영 변호사를 모시어 그간 베풀어준 성원에 감사했다.

이날 모인 주빈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성직업단체로서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 국회까지 움직인 예는 없었다고 극구 찬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와 줄 것을 다짐했다.

× × ×